

제348호 (2012. 2. 20)

■ 경제 동향

- 12월 아파트 거래량 전월 대비 40.4% 급증

■ 정책 · 경영

-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개선 방안
-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 정보 마당

- 호주 건설 활동 · 수익성, 올 상반기엔 저조 예상

■ 업계 · 연구원 소식

■ 경제 일지 / 제도 · 용어 해설

■ 건설 통계

■ 건설 논단 : 건설산업의 역할 제대로 알려야

12월 아파트 거래량 전월 대비 40.4%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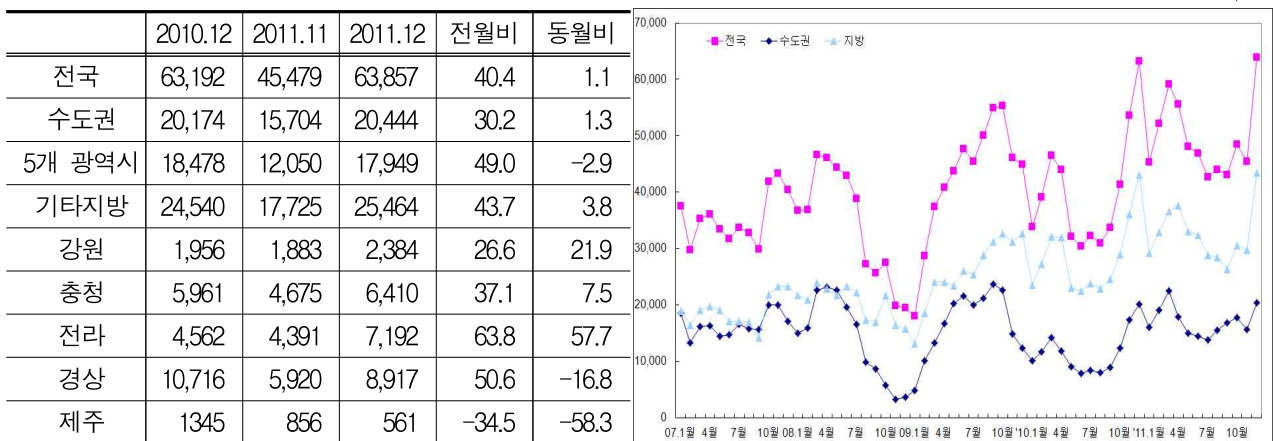
- 취득세 인하 종료에 따른 한시적 증가, 소비자들 가격 변동에 민감 -

■ 취득세 인하 종료에 따라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급증

- 2011년 12월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은 6만 3,857호로, 전월 대비 40.4%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전년 동월 대비로도 1.1%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
- 수도권은 전월보다 4,000호 가량 증가한 2만 444호로 전월 대비 30.2% 증가함.
 - 전월 대비 서울 33.2%, 인천 32.2%, 경기 28.7% 등 모두 증가함.
 - 강남 3구는 전월 대비 23.4%, 강북 14구는 전월 대비 33.2% 각각 증가함.
 - 경기 5개 신도시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38.7% 증가함.
- 지방은 전월 대비 1만 4,000호 이상 증가한 4만 3,413호로, 전월 대비 45.8%가 증가함.
 - 지방 광역시 역시 전월 대비 전 지역에서 증가
 - > 광주(119.2%), 울산(44.4%), 대구(37.2%), 부산(32.9%), 대전(22.7%).
 - 기타 지방에서는 전북(120.0%)이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 제주 (-34.5%)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월간 실거래가 거래량 추이>

(단위 : 호, %)



자료 : 국토해양부

■ 2011년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방에서 큰 폭의 거래 증가

- 2011년 연간 실거래가 거래량은 59만 4,795호로, 통계 작성(2006. 1) 이래 최대의 거래량을 보였으며, 최근 5년(2006~10년) 간의 평균 거래량을 23.2% 상회함.
 - 수도권은 2006년 이후 20만호 내외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3.9% 감소한 수준임.
 - 지방은 금융 위기 직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4.8%가 증가한 수준을 보임.
- 거래량이 가격 상승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최근 가격 상승이 높았던 지방을 중심으로 급증함.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 및 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호, %)



자료 : 국토해양부, 국민은행.

■ 주택 '고가의 내구재' 특징으로 인해 가격 변동에 소비자 반응 민감

- 주택 자체가 고가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 및 비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래량이 큰 변화를 보임.
 - 취득세 인하가 2011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말의 월간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연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내외일 경우 연간 주택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
- 최근의 취득세 인하 종료는 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주택 구매를 앞당기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주택 거래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주택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소비자가 주택 가격 및 비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 따라 가격 책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 개선 방안

- 해당 등급 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 참여토록 제한 필요 -

■ 등급별 제한입찰제도 현황

-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중소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확보해주고, 소수 건설업체에 의한 독점 수주를 방지하여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등급별 제한 경쟁 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
 - 적용 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 95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 입찰 대상 공사
- 그러나, 등급제 적용 공사 물량이 전체 공사의 20%에 불과한 반면, 그나마 등급 제한으로 발주된 등급 공사 중 해당 등급의 업체가 수주한 비중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보해주려는 등급별 입찰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이 미흡한 실정임.

■ 문제점

- 운용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급별 제한 입찰의 문제점은 발주 물량의 측면과 운용 기준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발주 물량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등급 제한 입찰을 발주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재 등급 제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과 LH공사 2개뿐으로 등급 제한 입찰 시행기관이 절대 부족
 - 대부분의 지자체가 등급 제한 입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지방계약법령상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등급 제한 자체 발주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 제한으로 발주토록 규정이 변경되어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미하다보니 등급별 제한 경쟁을 적용하는 지자체 공사가 크게 줄어들음.
 - PQ 요령 제5조 단서 규정으로 추정 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고난이도 PQ 공사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는 등급 제한 발주에서 제외되어 운용되고 있음.

- 운용 기준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해당 등급의 대부분의 업체가 실적 평가 만점 기준에 비하여 보유 실적이 부족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위 등급의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하여 실적을 보완해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제한 입찰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당 등급 업체의 수주 비중이 50%에 그치고 있음.
 - 매년 등급별 물량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발주될 공사의 분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등급별 공사 배정 물량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근거하여 등급을 구분·운용함으로써 배정 공사 규모가 해당 등급 업체의 시공 능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등급제 적용 공사의 입찰시 동일 등급 내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실적이나 기술력이 다소 우수한 해당 등급 내 상위에 있는 업체가 유리하고, 하위에 속한 업체는 불리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상·하위 업체 간 수주가 불균형한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개선 방안

- 조달청과 LH공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등급제한입찰제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 직접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등급 제한 기준을 운용하여 등급제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추진
-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제한하는 한편, 시공 경험 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하거나, 공동 도급시 실적 합산 방식의 개선이 필요
- 해당 등급 업체의 참여 지분이 높을수록 PQ 평가 등에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각 등급별 배정 공사의 범위는 시공 능력 평가액과는 상관없이 등급 내 업체들의 실적 분포 실태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수요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여 운용토록 허용하는 등 평가 기준, 등급 편성 및 공사 배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등급의 공사는 가급적 해당 등급의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김영덕(연구위원 · kyoduk@cerik.re.kr)

* 교량건설공사, 공항건설공사, 댐 축조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건설공사,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공사, 관람집회시설공사.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 서울시 정책과 민간 자본 융합을 통한 신상품 개발 전략 구상 -

■ 2012년 국내외 경제 환경 변수

- 2012년은 이미 밝혀진 경제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향후의 방향성 예측도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정리할 수 있음.
 - 밝은 면보다 어두운 미래 예측이 지배할 정도로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
-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4개 국가에서 대통령(주석) 선거가 있을 예정임.
- 우리나라도 총선과 대선이 올 한 해에 몰려 있을 정도로 국내외적인 정치적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해 있음.

■ 2012년 서울시가 처한 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 지역 균형 발전 국가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서울시 권역 내 건설 경제 전반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 본사를 둔 정부 및 주요 공공 기관들의 지방 이전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시장 선거에 의해 새로운 주택·부동산 정책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해 및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공존해 있는 상황임.
- 최근 3년 간 300억원 미만 공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2011년도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증가한 반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인당 SOC 스톡 비용이 651만원으로, 타 지역 평균 값(1,655만원)의 39%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낮아져 있는 현실임.

■ 서울시장의 10대 공약과 서울시민들의 지역 발전 기대

- 새 서울시장의 10대 공약 중 건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문
 -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보다는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인 희망 등지 프로젝트가 제1호 공약인 만큼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전시성 토건 사업 재검토가 4순위로 계획된 만큼 SOC 사업에 대한 투자 지연도 불가피해 보임.
-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역 발전 우선순위*와 건설시장
 -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교통 여건의 개선, 및 교육과 편의 시설 확대 등 SOC 및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에 있음.
 - 불량 주택의 개선보다 복지 시설의 확충 및 규제 완화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남.

■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시장 창출 전략 구상

-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공공 재정 사업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시장 공약 사업에 포함된 도시 안전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함.
 - 노후화된 기반 시설의 개선은 물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 시설의 확대는 도시 안전의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및 민간 자본 시장 유입 촉진책 활성화 필요
 - 재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정책 필요
 - 외자 및 민간 자본 유인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됨에 따라 새시장의 공약과도 일치함.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 지표로 본 서울의 지역 특성과 발전 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리포트), 2011.5.4

호주 건설 활동 · 수익성, 올 상반기엔 저조 예상*

- 경제 전반도 금융 위기 이후 침체 지속 -

■ 경제 현황 및 전망

- 호주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초기부터 정부가 지속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고용률과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임.
 -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매, 제조, 주택 및 상업용 건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신중해졌으며, 긴축 금융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감.
 - 대규모의 자원 개발 사업 및 SOC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반면, 주택 수요와 PF 사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호주 경제는 대규모 LNG 사업 등 자원 개발 관련 토목 투자 사업의 붐으로 인하여 향후 12개월 내지 18개월에 걸쳐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 현황 및 전망

- 호주 건설시장은 상업용(비주거용) 건축 부문, 주거용 건축 부문, 토목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문별 현황과 전망은 다음과 같음.
 - 상업용(비주거용) 건축 부문 : 교육 및 사회 단체 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극심한 침체는 면했으나, 민간 부문의 비주거용 건축 공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보다 30~40% 감소된 상태임. 오피스와 호텔 부문은 2011/12년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나, 교육 및 사회단체의 시설 부문이 대폭 줄어들어 비주거용 건축 부문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비주거용 건축 부문의 전망은 경제 성장과 민간 부문의 회복력에 달려 있음.
 - 주거용 건축 부문 :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음. 일정 기간의 침체 이후 미약하나마 회복 단계에 들 것으로 전망됨. 성장에 영향을 끼칠 주요 위험 요인은 이자율임.

* 본고는 2011. 11.15~18일 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39차 IFAWPCA(아시아·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 대회에서 호주건설협회(MBA)가 제출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 내용 중 주요 항목만을 발췌, 정리한 것임.

- 토목 부문 : 지난 5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원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은 편임. 아시아 지역 신흥 경제의 성장 전망과 비싼 자원 가격 등에 힘입어 현재 43억 달러의 Gorgon LNG 공사 등을 비롯한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음. 호주 CFC(Construction Forecasting Council)는 토목 부문이 2011/12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함.

<호주 건설시장의 3대 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년)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비주거용건축	34,902	34,992	32,033	33,120	34,101
주거용건축	75,998	81,691	86,702	92,067	97,790
토목	76,731	77,391	87,726	100,477	110,870
합계	187,631	194,074	206,461	225,664	242,761

주 : 통계표상의 연도별 기준은 매년 6월 말 기준임.
 자료 : Construction Forecasting Council, 2011. 3.

- 호주건설협회가 향후 호주 건설산업의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2011.9)한 결과, 호주 건설업자의 대부분은 호주의 건설 활동과 수익성이 2012년 상반기 내내 저조할 것으로 조사됨.
- 호주의 건설업체들은 민간 부문이 회복될 때까지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건설업 고용 현황 및 전망

- 호주 건설산업은 규모 면에서 전체 산업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031,800명이며, 이는 전체 산업 취업자의 9%를 상회하는 수치임.
- 건설업 고용률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금융 위기로 호주 경제가 침체되면서 건설업 고용도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회복된 상태임.
- 호주의 건설업 고용률은 2009년 전년 대비 -1.2%(982,900명), 2010년 1.8%(1,000,800명), 2011년 3.1%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에는 건설업 고용 인력이 1,300,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김영덕(연구위원 • kyoduk@cerik. re. kr)

■ 대한건설협회, '2011년 12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조사' 발표

- 2011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10조 7,010억원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증가세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 민간 부문은 민자 철도 사업과 세종시, 혁신도시 주택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4.0% 증가한 74조원을 기록. 반면, 공공 부문은 대형 국책 사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4.2% 감소한 36조 6,000억원에 그침.
 - 공종별로는 토목이 SOC 시설의 발주 감소에 따라 2010년보다 6.2% 감소한 반면, 건축은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롯데건설, 요르단 세계 최대 디젤 발전소 수주

- 롯데건설이 지난 10일 요르단 국영 전력공사가 발주한 600MW급 1PPL(민간발전사업) 디젤발전소 건설공사를 5억 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발표
 - 이번 공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30km 떨어진 알마나카 지역에 16MW급 디젤엔진 발전기 38기와 연료 저장 탱크, 전력 계통 시설 등 발전소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14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임.

■ 대한건설협회, '제2차 녹색 건설 기술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2. 2. 17(금)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발표 주제 : - 녹색 건축 정책 동향(발표자 : 윤준상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관)
 - 녹색도시(건축) 건설의 활성화방안(발표자 : 왕광익 국토연 책임연구원)
 - 카본 프리 그린홈 탄소제로 건축 적용사례(발표자 : 조동우 건기연 선임연구원)
 - LH 녹색 건설 기술(사업) 적용사례(발표자 : 이익희 LH공사 부장)

■ 대림산업,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핵심 주기기 공급

- 대림산업-히타치 컨소시엄이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과 5,651억원 규모의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15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담당관실 주최, 규제개선감시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및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및 2011년 규제 개혁 건의 과제 검토
2. 16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정책관실 주최, 건설입찰제도 선진화 TF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장단기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 방향 수립에 대한 자문
	서울경제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제TV '부동산시장 이래야 살린다' 프로그램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 - 국내 부동산시장의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3. 13(화)~15(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전망과 동향/자금 조달/PF 사례 연구/현금흐름 분석 등 실무를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 22(수)~24(금),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교육 내용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으로 편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연구 분야 직원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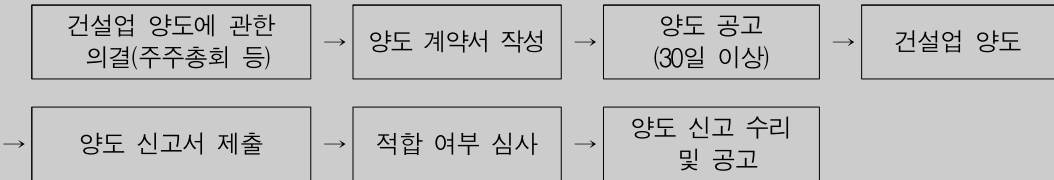
- 분야 : 건설관리(CM)
- 응시 자격 : 박사 학위 소지자(2012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해당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자 우대
- 채용 직급 : 연구위원급
- 전형 절차 :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 발표 및 면접
- 서류 제출 기한 : 2012. 2. 24(금)
- 문의 및 참조 : 업무지원팀(02-3441-0837),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일자	주요 내용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2011년 1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2월 중 M(평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전월 2.0%에서 1.6%로 4개월 연속 하락, M2 증가율은 4.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L는 전월과 같은 6.2% 증가, L증가율은 전월 8.9%에서 9.4%로 상승 ▪ 기획재정부, 「2012년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협동조합기본법」 후속 조치 관련, 새로운 기업 모델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업무와 정책에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오는 12월 1일 시행일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함.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2012년 생산자물가지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 부문별로는 농림수산품은 축산물이 하락했으나 채소류와 과실류가 오르면서 전월 대비 0.5% 상승, 공산품은 국제 유가 상승과 영향 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올라 전월 대비 0.7% 상승, 서비스 부문은 금융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0.9% 상승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2011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 결과, 총세입은 270.5조원, 총세출은 258.9조원, 그 차액인 결산 잉여금은 11.6조원이 발생. 그 중 5.1조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총 6.5조원의 세계잉여금 발생 ▪ 기획재정부, 「2011년 국세 징수 실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총 국세 규모는 192조 3,812억원으로 2010년 국세 실적(177조 7,184억원) 대비 8.3%(14조 6,628억원) 증가, 2011년 예산(187.6조원) 대비 2.5%(4.8조원) 초과 ▪ 금융감독원, 「2011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현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12월 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36%로 전년 말(1.90%) 대비 0.54%p 하락하였으며, 부실채권의 규모는 18.8조원으로 전년 말(24.8조원) 대비 6.0조원 감소 ※ 부실채권 비율(고정이하어 신비율) = 고정이하 여신/총여신 ▪ 지식경제부, 「세계 에너지 전망 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에서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 파티 비를 박사는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2035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33% 증가하며, 가스·신생에너지가 수요 증가분의 67%를 공급할 것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금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미국 LA 현지 「한·미 FTA 실무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LA 현지 수출입 기업인 및 바이어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FTA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입 통관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검증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한·미 FTA 발효 즉시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 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특허, 임상/인허가, 산업 정보, 시장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2012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매년 바이오 의약품 10종, 의료기기 10종에 대한 분석 자료를 무료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임.

<건설업의 양도 · 합병 · 상속제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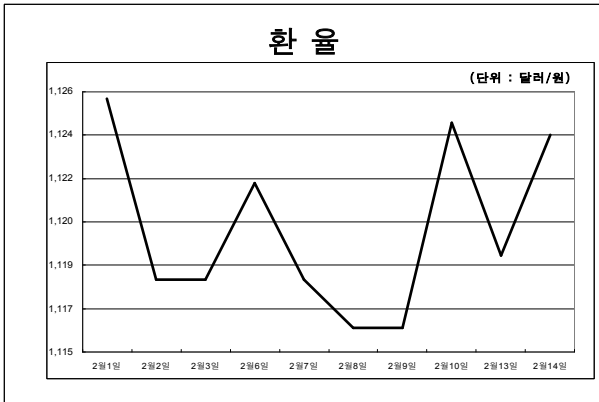
① 건설업의 양도

● 건설업 양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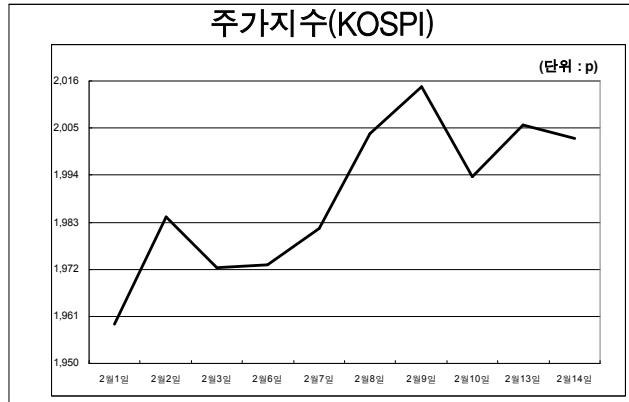


- **처리 기관** : 종합건설업은 양도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서 접수 및 심사하고, 시·도지사가 수리(처리 기간 : 10일)
- **건설업 양도의 공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양도 예정 연월일
 - 양도에 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 **공사 실적 및 건설업 영위 기간의 승계**
 -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 사업으로 전환, 합병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
- **건설업 양도의 내용**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인 공사의 하자 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 양도의 제한**
 - 영업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을 때
 -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 정지 중에 있는 때
- **양도인의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양도인이 양도 전에 등록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기준 미달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 정지 등 제재 처분 절차가 먼저 착수됨에 따라 그 기간 중에는 양도 수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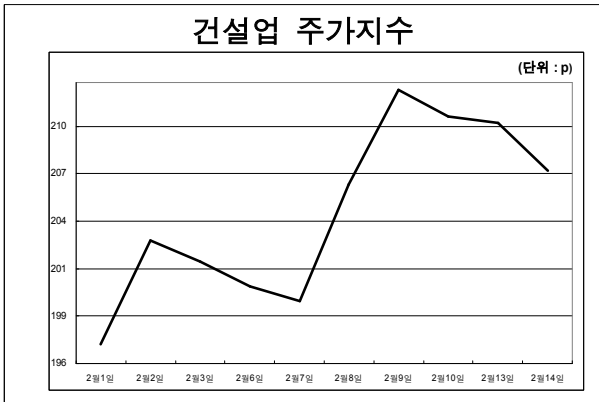
■ 주요 거시경제 지표(2012. 2.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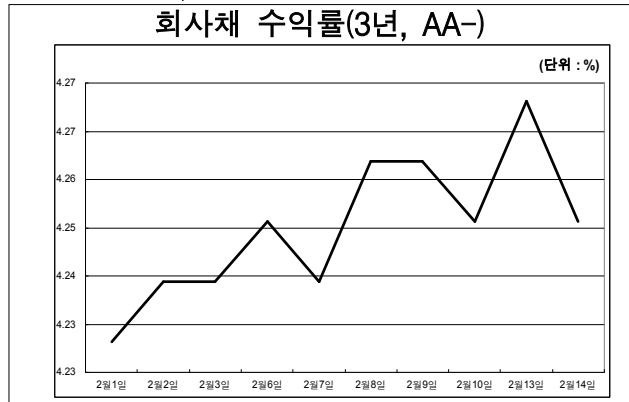
- 전주 대비 60원 상승



- 전주 대비 21.1p 상승



- 전주 대비 7.4p 상승



- 전주 대비 0.01%p 상승

■ 경기종합지수

구분	201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행종합지수	135.9	135.5	136.6	137.7	138.6	139.2	138.7	138.9	138.7	139.2
전월비(%)	0.4	-0.3	0.8	0.8	0.7	0.4	-0.4	0.1	-0.1	0.4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6	99.9	100.2	100.6	100.9	100.9	100.1	99.8	99.3	99.2
전월차(p)	0.0	-0.7	0.3	0.4	0.3	0.0	-0.8	-0.3	-0.5	-0.1
선행종합지수	129.4	128.9	129.5	130.2	130.8	130.9	130.4	130.1	130.5	131.1
전월비(%)	-0.3	-0.4	0.5	0.5	0.4	0.1	-0.4	-0.2	0.3	0.5
전년 동월비(%)	1.6	1.0	1.3	1.7	2.0	1.9	1.4	1.0	1.1	1.5
전월차(%p)	-0.7	-0.6	0.3	0.4	0.3	-0.1	-0.5	-0.4	0.1	0.4
후행종합지수	139.4	140.3	141.4	142.9	144.3	145.6	146.2	146.7	147.4	148.6
전월비	0.4	0.6	0.8	1.1	1.0	0.9	0.4	0.3	0.5	0.8

주) 동행종합지수 : 생산, 도소매판매 등 실제 경기와 같이 움직이는 8개 구성지표 종합
 선행종합지수 : 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 경기 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10개 구성지표 종합
 후행종합지수 : 재고, 소비지출 등 경기 순환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5개 구성지표 종합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동행지수에서 추세 변동분을 제거한 자료로 현재 경기 국면 및 전환점 파악에 이용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 향후 경기 국면 및 전환점 예측에 이용

건설산업의 역할 제대로 알려야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국내 건설 경기가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마디로 국내 건설산업은 매우 궁(窮)한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럴 때면 곧잘 ‘궁하면 통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 말은 바로 주역(周易)에 나와 있는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에 유래한다. 궁하면 먼저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것으로 궁에서 벗어나 통하는 것의 요체는 변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 건설산업에도 지난 세월동안 명암이 함께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업을 ‘삼질공화국’의 대명사이고 ‘부패의 온상’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작태이다. 다시 말해, 건설산업의 어두운 면만 강조해 오고 있는 집단에 의해 파렴치한 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않은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해외시장에서의 역동적인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에서 9번째로 1조 달러 대열에 진입하는 한국 무역의 위상은 우리 국민에게는 큰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다. 작금의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7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하는 하는 점이다. 즉,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우리 위상은 한국 무역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는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우리 건설업계는 이러한 위기를 중동 특수로 바꾸면서 한국 경제 중흥의 토대로 삼았다. 국내 건설기업이 중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1976년까지 고질적인 무역외 수지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켰다. 이러한 해외 건설의 기여도에 힘입어 구축된 경제적 토대 위에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1975년과 1976년에 각각 준공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금성사(현 LG전자) 창원공장 등... 다시 말해 우리 건설산업이 전자와 자동차와 같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야 하지 않는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이가 있었는가? 그렇게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해봤는가? 지금 당장 궁하다고 정부의 정책적 시혜만을 학수고대하기보다 우선 우리 건설산업의 역사를 춘추필법에 의거해 정리하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거대담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국민에게 진지하게 풀어서 전달하는 이야기꾼과 거대 담론을 펼칠 진정한 논객의 출현이 시급하다. 나타나지 않으면 건설산업 차원에서 길러내야 할 시점이다. <건설경제, 2012. 1. 12>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erik.re.kr)